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43 -

“환경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동시에!”

‘생활용품 수명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 발표

- 소모성 부품 미판매와 짧은 보관주기로 환경을 위한 소비 쉽지 않은 상황
-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확대, 소비자 수리권 확대로 소비자 권리 보호, 생활폐기물 및 탄소 감축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4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생활용품 수명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용품의 부품 보유 기간 등을 강화해,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고쳐 쓰는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자동차 200만 대에 해당하는 약 400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고 밝혔다. 실제 유럽환경국(EEB)에서는 유럽 내 전자제품의 사용 수명 1년 연장이 400만 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례로 생활 속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손꼽히는 텀블러의 경우, 사용 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수리에 필요한 고무 패킹 등 소모성 부품을 따로 판매하지 않아 기존 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휴대폰 같은 IT제품도 제조사의 부품 보관주기가 짧은 탓에 소비자는 개인의 수리 의사에도 불구하고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후보는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며, “고쳐 쓰고 오래 쓸 소비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필요한 지원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 확대,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 및 서비스 시장도 커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소비자 권리 보호와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리권 보장, 반드시 필요하다” 며, “이제 우리 생활에서부터 탄소저감 노력을 기울일 때” 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소비자의 수리권 확대를 위한 각종 법안을 시행·검토 중이다. EU는 지난해 ‘Right to Repair(수리할 권리)’ 보장법을 시행하고 전자제품 제조사들로 하여금 10년간 부품이 단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리 매뉴얼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EU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들에도 적용된다.

미국도 지난해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뉴욕주 등 27개 주에서 공정수리법안(Digital Fair Repair Act)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자보호법’ 상 수리를 위한 부품 보유기간은 냉장고, TV 등 주로 가전제품 위주로 3~9년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문구·완구류는 1년, 기타 생활제품의 소모성 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보유하거나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 참고자료

### ○ 소비자 스마트폰 교체 이유 현황 조사

-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2020.12)에 따르면, 휴대폰 교체 이유는 △'노후화·성능저하·고장이 잦아서' 43% △'단말에 문제는 없지만 최신폰을 쓰고 싶어서' 25% △'분실·파손' 14% 등 단말기 고장 문제로 교체한 응답자가 57%임.
- 휴대폰 수리가 쉽게 가능할 경우 제품의 사용 주기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 카페 텀블러 소모성 부품 판매 관련

연합뉴스

㉞ ㉟

#### '카페 텀블러' 쏟아지는데 고무패킹은 어디서 구하나...절반만 친환경

송고시간 | 2021-10-24 08:00

스타벅스·투썸 등 카페 대다수, 소모성 부품 따로 안 팔아  
구매 안내도 불성실...고무 많으면 멀쩡한 본체 버리는 상황



\* '카페 텀블러' 쏟아지는데 고무패킹은 어디서 구하나...절반만 친환경 2021.10.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2128700003>

### ○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부품 보유 관련 자료

품목	부품보유기간
TV,냉장고	9년
자동차,보일러,에어컨	8년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세탁기	7년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5년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폰, 스마트폰	4년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헤어드라이어	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부품보유기간

- 문구, 완구류는 부품보유기간 1년
- 기타 생활제품의 소모성 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보유하거나 별도 규정 없음

○ 수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자료

<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좌), 사업체당 매출액, 영업이익(우) >



\*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 2019년 국내 수리/기타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늘어났지만, 사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 수리권 보장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의 수리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됨.

○ 폐기물 감량을 통한 환경보호

- 유엔의 2020년 글로벌 전자 폐기물 보고서(Global E-waste Monitor 2020)는 2019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 양이 536억 톤으로 5년 사이 21% 상승했으며, 2030년에는 740억 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유럽환경국(EEB) Reports에 따르면, 각 제품의 수명연장 시 아래와 같이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됨.

(단위 : 메가톤 Mt CO<sub>2</sub>)

	1년 연장	3년 연장	5년 연장
스마트폰	2.1	4.3	5.5
노트북	1.6	3.7	5
세탁기	0.25	0.66	1
진공청소기	0.1	0.3	0.5
합계	4.05	8.96	17

\* 'COOLPRODUCTS REPORT BRIEFING' 2019.9 EEU

<https://mk0eeborgicuyptcf7e.kinstacdn.com/wp-content/uploads/2019/09/Coolproducts-report.pdf>

자동차 1대당 연간 CO<sub>2</sub> 배출량 = 2톤

※ 자동차 1대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Y)=온실가스 배출 계수 140g/km × 1일 평균 주행거리 39.5km/대 × 365일

⇒ 따라서, 4개 제품의 1년 수명연장 시, 연간 CO<sub>2</sub> 배출 감축량은 차량 200만대 배출량에 해당됨.